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광주의 날' 개막식에 참석한 강기정 광주시장과 양부남·정진욱·안도걸·조인철·정준호·전진숙·박균택·민병배 국회의원,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 등 내빈들이 광주명세를 외치고 있다. <광주시제공>

성일종·안규백·김민석·이학영·김주영·김소희 전방위 협력 이끌 '팀광주' 6명 위촉

광주시는 '국회, 광주의 날' 첫째 날인 2일 서울 국회에서 '팀광주 국회의원 및 명예시민 위촉식'을 열어 위촉패와 광주명예시민증을 전달했다.

'팀광주 국회의원'은 제22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성일종 위원장과 안규백·김민석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학영 국회 부의장과 김주영·김소희 의원 등 총 6명이다.

'팀광주 국회의원'은 광주 지역구 국회의원이 배치되지 않은 국방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로 구성됐다.

팀광주 의원 위촉은 민·군 통합공항 이전, 대한민국 제1호 노사상생형 일자리 모델인 '광주형일자리' 고도화, 정부 계획보다 5년 빠른 2045 탄소중립 이행 등 현안 추진을 위해서는 국회의 적극적인 협력이 절실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광주시는 전방위 국회 협력을 이끌기 위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지역 연고와 의정 활동 방향 등을 고려해 위촉했다.

강기정 시장과 신수정 시의회 의장은 지난해 광주명예시민이 된 성일종 의원을 제외한 팀광주 국회의원 5명에게 광주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팀광주 의원은 제2지역구 국회의원 역할을 맡아, 광주의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제도·재정적 지원 등에 나설 예정이다. /박선강 기자

광주시-국회-정당 '정책파트너'로 함께 뚝다

●'국회,광주의 날' 행사 첫째 날

민주당·조국혁신당·국민의힘, 광주발전 정책 공조 약속
이재명 "민주 핵심정책 광주서 꽃피워 지방자치 선도"
조국 "여야 모두 힘모아 광주 발전 논하고 노력 계기"
김상훈 정책위의장 "재정·정책·입법 보조 광주와 동행"

광주시가 국회, 각 정당과 함께 새로운 지방분권 시대를 향한 새판짜기에 나섰다.

광주시는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과 정책협약, 국민의힘과 정책 전달식을 통해 지방정부-국회-정당의 새로운 협력 시스템을 마련했다.

광주시는 '국회, 광주의 날' 첫째 날인 2일 서울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과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광주시와 민주당은 정책 협약을 통해 대한민국 성장 회복과 사회·경제적 기본권 실현에 협력하기로 했다.

주요 협력 내용은 ▲에너지 분권 실현을 위한 분산 에너지 도시 조성 ▲돌봄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한 '돌봄+의료+생활' 통합 모델 구축 ▲주거 및 교통 기본권 실현을 위한 지방특화형 모델 구축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도시형 특화모델 발굴 및 확산 등이다.

협약에 따라 광주시와 민주당은 지역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정책을 함께 발굴하고 이를 적극 추진해 성공 사례를 도출, 전국으로 확산하는 데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강기정 시장은 "민주당의 '기본사회 모델'과 '에너지 대전환' 등 당의 새로운 사회비전을 펼쳐는데 광주가 실증의 공간이 되겠다"며 "광주가 민주주의의 표준이 됐듯 기본사회와 에너지 정책을 실현하는데 앞장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발전 동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민주당이 지방자치를 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광주에서 확실히 보여주기를 기대한다"며 "아직도 중앙집권적인 우리 사회에서 지방자치가 충실하게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책협약을 통해 민주당 핵심 정책들이 광주에서 활짝 꽃피고 광주가 지방자치의 중심도시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주시와 조국혁신당은 4개 분야 정책 공조 협약을 맺었다.

협약 내용은 ▲사회권으로서 주거권 보장을 위한 지방특화형 주거 정책 구축 ▲더 나은 복지 국가 실현을 위한 '돌봄+의료+생활' 통합모델 구축 ▲탄소중립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지역 맞춤형 분산에너지 산업 육성 ▲일하는 모두를 위한 노동환경 개선 협력 강화 등이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전국 최초로 열린 '국회, 광주의 날'은 광장하린 의미가 있다. 이번 정책협약으로 광주정신의 전국화 뿐만 아니라, 여야가 모두 힘을 모아 광주 발전을 논하고 노력하는 계기를 만들어냈다"며 "조국혁신당은 광주시와 시민을 사랑하는 마음이 거대 양당보다 강한 만큼 최선을 다해 열심히 돕겠다"고 말했다.

여당인 국민의힘과는 국가 핵심 현안에 대한 상호 협력을 주 내용으로 하는 정책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전달된 정책은 국가 핵심 현안 등 국민 체감도가 높으면서 상호 방향성이 일치하는 ▲기후테크산업 ▲의료·돌봄 ▲맞춤형 주거 ▲지방 재정 분권 등 4대 분야 정책 협력 구축 등의 내용을 담았다.

강 시장은 이 같은 내용을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과 조배숙 호남동행국회의원특별위원장에게 직접 전달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광주 발전을 위해 여당에서 재정·정책·입법적으로 보조를 맞추고 도와줄 일이 많은 만큼 정책 제안에 있는 내용이 아니라도 광주를 위해 더 할 일이 없는지 국민의힘 지도부, 소속 국회의원들이 머리를 맞대 고민할 것"이라며 "광주와 함께 동행하는 국민의힘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강 시장은 "국회-정당-지자체 간 새로운 정책 협업 모델을 만들기 위한 자리"라며 "광주의 발전을 위해 여당의 도움이 절실한 만큼, 광주 발전을 위해 손을 맞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박선강 기자

제25회 함평 모악산 꽃무릇 축제

2024.9.12.-15.
함평군 해보면 꽃무릇공원

주최: 함평군 주관: 함평국제관광재단 후원: 산림청 전라남도 전라남도교육청 광주광역시교육청 한국관광공사 한국철도 해보면위원회

'농촌 왕진버스' 농민 건강지킴이 역할 톡톡

올해 말까지 전남 13개 시·군 54개 읍·면 의료서비스

전남도는 2일 "시·군-농협과 협업해 전남 곳곳을 누비며 의료서비스를 하는 '농촌 왕진버스' 사업이 지역 주민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의료시설이 부족한 농촌지역 여건과 농번기 고강도 농작업으로 피로를 호소하는 농업인의 건강관리 수요가 맞물린 결과라는 분석이다.

'농촌 왕진버스' 사업은 지난 5월 전남도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시작했다. 지자체와 농협이 협업해 의료서비스가 취약한 농촌지역에 찾아가 양·한방 진료, 안과·치과 검진 등 의료서비스를 하고 있다.

9월 중 농촌 왕진버스는 2일 영암 학산면을 시작으로 4일 고흥 도포면, 5일 여수 화정면과 곡성

읍, 6일 고흥 두원면과 해남 화원면, 23일 장성읍, 24일 고흥읍, 25일 함평 월야면, 26일 고흥 포두면과 해남 화산면, 완도 노화읍, 27일 담양 용면, 30일 장성 삼서면 등에서 운행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 7월18일 해남 문내면을 시작으로 장흥 용산면, 고흥 풍양면, 도양읍·도덕면 등 13개 시·군 54개 읍·면에서 운영된다. 지금까지 해남, 장흥, 고흥에서 약 1천500명에게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 활동을 펼쳤다.

해남에서는 농번기에 지친 농업인에게 원기회복을 위한 맞춤 약 처방으로, 장흥에서는 농업인 근골격계 질환 관리를 위한 물리치료를, 고흥에서는 한방진료와 견안·돌보기 제공 등으로 지역별 여건과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진료를 실시해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김재정 기자